

GANGJIN 

Web Contents



목차

목차	2
축제소개	3
조선병사 밥상과 함께하는 강진전라병영성축제	3
2024 제27회 전라병영성축제	3
초대가수	3
제27회 전라병영성축제 셔틀버스 시간표	4

조선병사 밥상과 함께하는 강진전라병영성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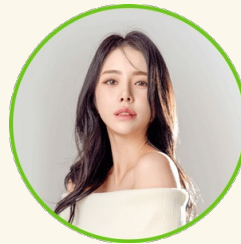
강진전라병영성축제는 외국인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문화체험과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이다. 고려 말 이래 계속된 외구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광산현에 설치되었던 전라병영을 도강으로 옮겨오면서 강진이 탄생하였다. 이리하여 50여 군현의 병권을 장악하여 전라도 군사권을 총괄하는 사령부로서 기능한 전라병영성! 그리고 강진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2024 제27회 전라병영성축제

- 기간: 3.29.(금) ~ 3.31.(일) / 3일간
- 개막식: 3.30.(토) 15:00
- 장소: 전라병영성 내(강진군 병영면 소재)
- 주최: 강진군
- 주관: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초대가수



미스트롯3 설하윤 3월 29
일(금)



현역가왕 린 3월 30일
(토)

 솫품 댄스 챌린지 경연대회 신청

 셔틀버스 예매(금호고속/버스한바퀴)

 리플릿 다운로드





제27회 전라병영성축제 셔틀버스 시간표

강진군청 → 전라병영성					전라병영성 → 강진군청				
강진여객 버스터미 널	강진군 청	강진 종합운동 장	금곡사 벚꽃축제 장	전라병영 성 (등문)	전라병영 성 (등문)	금곡사 벚꽃축제 장	강진 종합운동 장	강진군 청	강진여객 버스터미 널
10:10	10:15	10:20	10:30	10:45	10:55	11:10	11:20	11:25	11:30
12:30	12:35	12:40	12:50	13:05	13:15	13:30	13:40	13:45	13:50
14:00	14:05	14:10	14:20	14:35	14:45	15:00	15:10	15:15	15:20
15:30	15:35	15:40	15:40	16:05	16:15	16:30	16:40	16:45	16:50

조선조 500년 역사를 한번에 체험할 수 있는 역사적인 축제.

전라병영성(全羅兵營城)은 조선 태종 17년(1417년)에 설치되어 고종 32년(1895년) 갑오경장까지 조선조 500여 년간 전라남도와 제주도를 포함한 53주 6진을 총괄한 육군의 총지휘부이다.

그러나 1894년 갑오농민전쟁(동학)을 맞아 병화로 소실되었고, 이어 1895년 갑오경장의 신제도에 의해 폐영되고 말았다.

병영성 성곽의 총 길이는 1,060m이며, 높이는 3.5m, 면적은 93.139㎡(28.175평)인데, 현재 사적 397호로 지정되어 있다.

병영성 내의 당시 건물이나 유적은 소실되고 없으나 성곽은 뚜렷이 남아 있어, 그 역사적 의의를 고려하여 2010년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복원 중이다.

특히 병영성은 서양에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소개했던 하멜이 1656년 강진 병영으로 유배되어 7년 동안 살면서 노역했던 곳으로서, 주변의 '하멜 기념관'과 함께 하멜 관련 역사문화 유적지로서의 역할도 크다.



강진전라병영성축제에서는 전라 병영성 군 문화페스티벌 공연, 평양예술단 공연, 대한민국 무예대전 등 다채로운 행사들과 호패만들기 체험, 옛 날 감옥 체험,

나막신, 짚신신고 성관 둘러보기등 여러가지 재미있는 체험들을 즐길 수 있다.

체험의 하이라이트라 할수 있는 전라병영성 성곽 순례는 강진 병영문화해설사의 설명과 연극 배우들의 공연을 보면서 조선 왕조 국가체제를 정비 하면서 고려의 군사적 유제를 청산한 역사, 전라 지역의 병영 설치 이야기등 역사속 이야기를 재미있게 알아볼 수있는 오감만족 문화 탐방 체험이다.



강전라병영성 주변은 우리나라를 최초로 알린 헨드릭 하멜과 그 일행이 1656년(효종7년)에 강진 병영으로 이송되어 1663년 까지 약 7년간 머문 곳이기도 한 만큼 하멜의 역사적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이를 기념하여 하멜의 고향인 네덜란드 호르름시와 재며결연을 통해 하멜기념관을 개관하였다. 봄이면 튤립과 수선화가 만개하고 네덜란드 대표적인 상징인 풍차를 볼 수 있다.

COPYRIGHT © GANGJIN GUN. ALL RIGHT RESERVED.

GANGJIN

Web Contents

